

- **주요 뉴스:**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 재무장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ECB 이사,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위험을 인식
 - 영란은행 총재, 통화정책 완화는 결국 종료될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회복 기대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 민감주의 강세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 Stoxx600 지수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우려 등으로 1.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시장의 차익매물 출회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우려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91.1원, +0.4원) 포함, 한국 CDS 포함

		11/23일	11/22일	전일대비			11/23일	1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90.7	4,682.9	0.17%	국채 금리 10y	미국	1.67%	1.62%	5bp
	유럽	479.25	485.46	-1.28%		독일	-0.22%	-0.30%	8bp
	중국	3,589.1	3,582.1	0.20%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휴장	29,774	-		중국	49bp	48bp	1bp
	한국	2,997.3	3,013.3	-0.53%	위험 지표	EMBI+	-	378	-
환율	달러지수	96.49	96.55	-0.06%		VIX	19.38	19.17	1.10%
	유로화	1.1248	1.1237	0.10%		WTI유	78.50	76.75	2.28%
	엔화	115.14	114.88	-0.23%	원자재	구리	442.0	439.7	0.53%
	위안화	6.3920	6.3851	-0.11%		금	1,789.2	1,804.7	-0.86%
	원화	1,189.7	1,185.1	-0.3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백악관은 5천만배럴(미국 기준 2.5일 소비량)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며, 향후 원유 공급량을 충분한 수준까지 늘려 유가하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 이에 더해 중국, 영국, 인도, 일본, 한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1.5~2천만배럴 추정)에 동참할 방침
- Capital Economics의 Caroline Bain은 전략유 방출 규모가 당초 기대를 하회하고 OPEC+의 증산 지연 등을 통한 보복 가능성 등으로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 실제로 이날 WTI 및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상승
- Eurasia Group의 Hennig Gloystein은 주요 원유 생산국과 소비국의 갈등은 유가 변동성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소비국의 이러한 노력 자체가 OPEC+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경고 신호라고 해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옐런 장관은 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소비자의 서비스 상품 수요 증가, 공급 차질 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해당 시기에 월간 물가상승률은 중기 목표인 2%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

■ 미국 11월 마켓 종합 PMI, 전월비 하락. 노동력 및 원자재 부족 등에 기인

- 같은 달 해당 지수는 56.5로 전월(57.6) 및 예상치(57.4)를 모두 하회. IHS의 Chris Williamson은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급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

■ ECB 이사,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의 위험을 인식

- 슈나벨 이사는 내년 역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 ECB의 중기 목표를 상회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방으로 기울어있지만, 향후에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
- 네덜란드 중앙은행 닛 총재는 역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산매입 축소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유로존 11월 마켓 종합 PMI, 전월비 상승했으나 경기 둔화 요인은 지속

- 같은 달 해당 지수는 55.8로 전월(54.2) 및 예상치(53.2)를 모두 상회. Capital Economics의 Jessica Hinds는 역내 경기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급 차질과 물가상승 압력도 여전하여 향후 해당 지수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고 평가

■ 영란은행 총재, 통화정책 완화는 결국 종료될 필요

- 베일리 총재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 한편 통화정책 관련 선제적 지침 사용을 줄이고, 과거와 같이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밝히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하스켈 위원은 노동시장 수급이 팽팽하여(tight) 임금상승이 생산성 상승률을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지표들은 임금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

- 조우 란 금융시장국장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 등으로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또한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경기둔화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첨언

■ 캐나다 중앙은행,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

- 폴 뷔드리 총재는 급격한 투자자 유입이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 팬데믹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다소 약화되었으며, 주택시장 불균형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11, 10월(12), 예상치(5)

■ 주요 경제 이벤트(11/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성장률(수정치), 10월 내구재 수주, 도매재고, 신규주택판매
- 미국 1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 상품 무역수지, 독일 11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신호, 관련 부작용 등으로 타당성 논란 심화 - 블룸버그

(China's Slowdown Tests Central Bank Amid Debate Over Easing)

-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증폭되면서 최근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및 친환경 부문 지원 강화 등의 의지를 밝혀 이전보다 완화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
-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 또한 광범위한 통화정책 완화는 당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노력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 이에 상당 기간 지급준비율 혹은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전세계 은행권, 대출 손실 추정 관련하여 새로운 모델이 요구 - Financial Times

(Regulators raise the pressure on banks over loan losses)

-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국 은행들은 대출 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마련. 지금까지 대출 손실 산정은 과거 경험에서 도출된 모델에 의존했으나, 코로나 19 환경에서는 적용이 불가능. 대규모 정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의 대출 손실을 유도하기 때문
- 또한 경제붕쇄 등을 고려 시 대출 평가에서도 불확실성이 증가. 이에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은 예상되는 추가손실을 반영하는 PMAs(post-model adjustments)와 Q factors 등을 사용. 하지만 영란은행은 이를 일시적 해결책이라고 평가
- 또한 일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기존 측정모델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주장. 아울러 변화된 여건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

■ 미국 장기채권의 높은 가격, 고령화와 높은 수준의 부채 등이 지지 - Financial Times

(US bond bulls hold their ground in face of red-hot inflation)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 구성, 다음 행보는 금융 규제 부문에 집중할 필요 - WSJ

(How Will Fed Regulate Wall Street? Biden's Central Bank Picks Leave Question Unanswered)

■ 독일의 고물가, 대부분 일회성 요인에 기인하여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블룸버그

(Germans Shouldn't Overreact to 6% Infla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